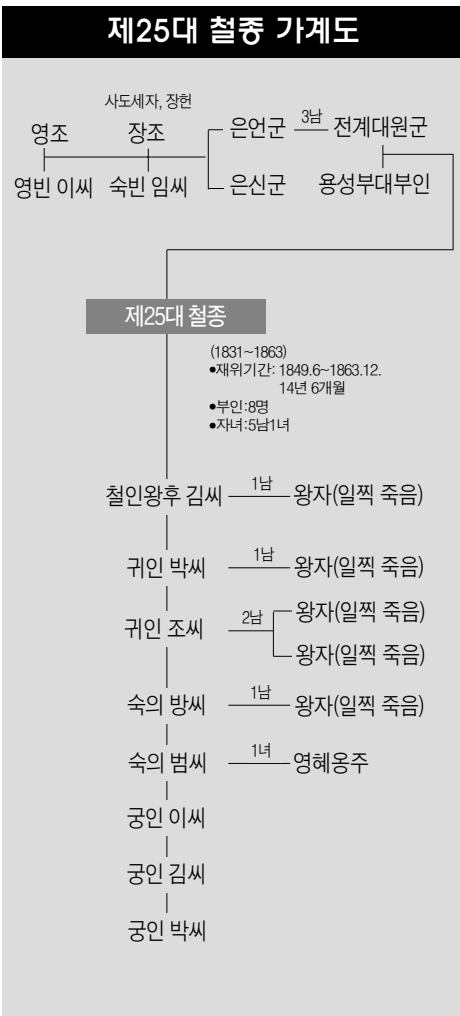


농사짓다 등극한 철종 안동 김씨 허수아비로 전락

58 25대 철종 - 예릉

철종 1831~1863(33세)
재위 14년 6개월
1849.6(19세)~1863.12(33세)
철인왕후 김씨 1837~1878(42세)



“사포님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 죄도 없 습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오색 깃발 휘날리며 그를 모시러 온 영 의정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연신 사포님 살 려달라고 울먹인다. 만인지상(萬人之上) 일인지하(一人之下)라는 영의정을 본 일 이 없는 떠꺼머리 시골 총각 원범에게는 고을 사포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덕완군(德完 君) 나오리. 어서 일어나시오소서.”
한순간에 호칭이 달라졌다. 아직 쥐먹 식을 거행하지 않았으니까 ‘나으리’다. 농사꾼 원범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덕 완군이라는 군호(君號)가 대왕대비의 덕 에 의해 내려졌던 것이다. 당황한 영의정 정원용이 예를 갖추며 머리를 조아렸다. 이렇게 하여 열아홉 살 무지렁이 총각 원 범이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다.

1835년, 24대 현종이 후사 없이 갑자기 승하하자 왕실과 조정이 발각 뒤집혔다. 왕위를 계승할 적자(嫡子)가 없었기 때문 이다. 이때 왕실의 어른이자 종실의 제일 웃어른인 대왕대비가 팔을 걷고 나섰다. 대왕대비 순원왕후 김씨는 김조신의 딸 로서 조선조 말 세도정치(世道政治)의 아성을 구축 한 안동 김씨였다.

순조비 순원왕후를 축으로 하는 안동 김씨와 순조의 장남 효명세자(효종비) 신 정왕후를 축으로 하는 풍양 조씨는 어느 쪽에서 먼저 왕을 내느냐 하는 문제로 신 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는 어느 한 개 인의 이해(利害)가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나 몰락이나 하는 중차대한 문제였다. 신 하라는 이름으로 조정의 권력을 틀어쥔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는 때로는 협조하 는 동반자로, 때로는 각을 세워 대립하는 라이벌로서 조정의 권력을 양분하고 있 었다.

중전부를 꺼내놓고 찾아보니 정조대왕 의 아우 은언군(恩彦君)의 손자 원범이 떠 울랐다. 안동 김씨의 좌장적인 김문근과 대왕대비는 지체 없이 원범을 택했다. 직 계혈통에 마땅한 사람도 없었지만 정치 적인 배경이 있거나 성군이 될 여지가 있 는 특별한 사람보다도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는 원범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적임자였다. 또한 풍양 조씨에게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총각을 지체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대왕대비의 명이 떨어졌다. 종묘사직 을 이어갈 왕으로 원범이를 택한다는 교 지였다. 이게 바로 태군(太子)이다. 임금 이 신하를 임명하고 면직시키는 것이 아

니라 신하가 군왕을 선택하는 기가 막힌 처사다. 비록 대왕대비의 명을 거치는 요 식행위를 거쳤지만 신하가 임금을 선택 한다는 것은 권위를 기반으로 군림해야 하는 왕실로서는, 몰락으로 가는 급행열 차를 타는 것이다.

안동김씨에 의해 간택(?)된 원범은 사 도세자의 서자이자 정조대왕의 아우 은 언군의 손자로서 할아버지 은언군이 천 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사형당하고 아버 지 전계군은 원경, 경응, 원범의 세 아들 을 두었는데 큰형 이원경은 민진용의 모 반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다. 이에 놀란 아버지 전계군은 두 아들을 데리고 한양 을 빠져나와 강화도에 숨어들었다.

글을 읽고 깨우치는 것은 죽음으로 가 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아버지는 원범 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고 농사를 짓게 하 며 농사꾼 노릇을 하도록 했다. 이러한 아 버지와 어머니마저 천주교 신자라는 이 유로 잃고 작은형마저 죽자 원범은 천애 고아가 됐다. 외톨이가 된 원범에게 따듯 한 마음을 전해주는 여인이 있었으니 북 너라는 애정으로 불리는 영순이었다.

떠꺼머리 총각 원범과 섬 처녀 영순의 사랑은 길지 못했다. 1850년 6월 5일, 영 의정 정원용이 이끄는 제왕봉영 일행이 갑곷나무를 건너 강화도에 들어닥쳤다. 깃발을 앞세우고 진해루(동문)를 통과하 여 위엄 있게 들어오는 일행을 발견한 원 범은 자기를 잡으려 온 것으로 착각하고 산으로 숨어버렸다. 난감해진 것은 한양 에서 강화까지 온 봉영 일행이었다. 이를 밤을 강화유수 관아에서 묵은 일행은 대 책 마련에 부심했다.

더욱 몸둘 바 몰라 하는 것은 강화유수 정기세였다. 한양에서 봉영 일행을 이끌 고 강화까지 행차한 정원용은 관직으로 는 하늘같이 떠날지어야 하는 영의정이 었고 사직으로는 안되지였기 때문이다. 한양에서 내려온 일행이 불편하지 않게 보살피고 임금을 모셔가는 일이 매끄럽 게 진행돼야 할 때 열릴 텐데, 원범이 가 산 속에 들어가 나오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마지막 수단으로 영순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강화유수는 영순이를 설 득하고 영순이는 원범이를 타이르는 행 국이 됐다. 원범이를 모셔갈 봉영일행이 강화도에 처음 당도했을 때 영순이 역시 원범이를 잡아갈 무리라 생각하고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라며 깊은 산 속 동굴에 원범이를 밀어 넣었다. 원범이에게 잘 밥을 삼배 보자기에 싸



강화도에 있는 광성보

왕으로서의 역량, 의지, 충성스런 참모도 없었던 비운의 왕 성군 자질 보다 권세 위해 배경 없는 강화도령 왕으로 ‘태군’

들고 산을 오르던 영순이가 뒤돌아서 마 을을 내려다보았다. 강화유수 관아에서 갑곷 나무까지 줄지어 서 있는 일행이 예 사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다. 350여명이 나 되는 행렬과 기품 있는 가마가 준비된 것으로 보아 강화유수의 말처럼 원범이 를 잡으려 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유수의 말처럼 ‘원범이가 왕 노릇 하러 한양으로 가면 나는?’이라는 의문에 답이 없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씨 착한 원범이의 각시가 되어 아들 딸 낳고 알뜰살뜰 살겠다는 순진한 섬 처 녀의 꿈은 유효한 것일까?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룡한 답이 없었다. 그러나 철종의 운명은 정해진 수 순에 따라 진행될 뿐이다.

대왕대비의 리모콘에 의해 열렬결에 왕위에 오른 철종이 무슨 일을 할 수 있

랴. 3년간 수습기간(수렴청정)을 마치고 막상 친정을 시작했지만 왕으로서의 역 량도, 의지도, 충성스런 주변 참모도 없었 다. 정신이 들어 나름대로 백성을 위하고 선정을 펴려고 애썼으나 안동 김씨의 고 용 사장이란 굴레를 벗을 수 없었다. 은밀 한 조언자 역할을 해줄 왕비조차 안동 김 씨 김문근의 딸이었다.

그때, 왕노릇 포기하자. 마음을 비우니 그의 세상에는 쾌락 천국이 대량된다. 대 굴에 있는 여자는 모두 왕의 여자다. 여색 을 마구 탐한들 누가 탄지를 걸까. 오히려 히히덕거리며 그것을 부추기는 세력이 득실거린다. 정비 철인왕후 외에 공식 후 궁을 7명이나 두었다. 기록에 없는 하룻 밤 풋사랑의 여인들이 얼마나 됐지는 알 수 없다. 결국 여색에 빠져 요통에 걸 려 누웠다가 33세로 승하했다. 슬하에 5

남녀를 두었으나 아들은 모두 ‘○○군’ 이란 이름도 얻지 못하고 요절했다. 여기 에도 여지 음모가 없었으랴. 단 하나 살아 남은 딸, 영혜옹주는 갑신정변의 주역 개 화파 박영효에게 시집갔으나 몇 달 살지 못하고 죽었다.

원범이를 한양으로 떠나보낸 영순이는 매일같이 해질녘이면 갑곷나무터에 나가 원범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 만 기다려도 기다려도 원범이는 돌아오 지 않고 무심한 갈매기만 끼룩끼룩 울어 떨 때 영순이도 같이 울었다. 그후 영순이 는 어떻게 살다죽었는지 모른다. 고인이 된 신상옥 감독은 그녀에 대한 진혼곡 삼 아. 영화에서는 철종이 그녀를 궁궐로 불러 재회하는 장면을 삽입하기도 했다.

글:이우성(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면(사진작가)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원목가구

2007년 가구부문 히트브랜드상 수상

자연을 담은 한 잔의 차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가구 - 다심마루

소나무로 만든 茶心 茶心마루 명품 전통가구

‘순태영의 라이프 매거진’ 동아TV 전격 방영!!

협찬 직선침대

자연을 웰빙과 장인의 숨결이 담긴 다심마루!
▶ 국내에서 수공예로 제작되는 명품가구입니다.
▶ 자연스런 나뭇결 절묘한 곡선미의 골동품 가구.
▶ 장인(匠人)의 손끝으로 모든공정에 짜맞춤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손때가 묻을 수록 더욱 멋스러워집니다.

주문 제작 원목가구를 원하시는 형태로 직접수공하여 옷장, 침대, 거실장 등을 주문제작해드립니다.

인터넷과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OEM)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심마루 낙관을 꼭 확인하십시오.

소파: 2000x750x400

주문 상담 전화 무료: 080-999-1080

곡선침대: 2100x1700x320

소자본 창업 대리점 모집: 구미·안동·포항·경주·울산·거제도·진주·군산·순천·전주·제주도 (문의: 011-863-3557)